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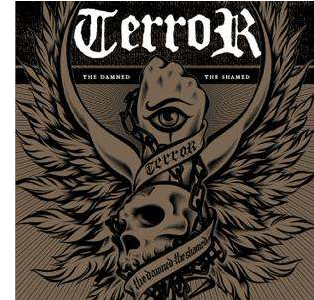
조약골 <아나키즘으로 떠나는 파란만장한 여행>

제 4강 아나키즘과 여성주의: 엠마 골드만 (Emma Goldman) II

◆1교시 : 엠마 골드만 4

▲엠마 골드만과 출고츠

엠마 골드만의 모어(母語)는 독일어였죠. 영어를 서툴게 했는데, 나중에 뛰어나게 구사했는데, 오스기 사카에도 똑같은 원칙이 있었어요. 일범일어(一犯一語), 한 번 감옥에 가면 한 개의 외국어를 익힌다. 는 것이 오스기 사카에의 원칙이었어요.



오스기 사카에의 경우 처음 똑같은 엠마 골드만과 비슷한 선동죄, 반란죄, 대역죄의 적용을 받고 감옥에서 에스페란토를 배우고 두 번째는 스페인어를 배우죠. 오스기 사카에는 3개월 정도 외국어의 기초서적을 탐독하면서 외국어를 하고, 6개월을 하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했다고 해요.

엠마 골드만도 감옥에서 독학, 영어, 연극을 배우면서, 나와서는 멋진 연설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버크만이 암살미수로 감옥에 갇히고 나서 엠마 골드만이 만든 잡지, mother earth ‘어머니 대지’죠, 창간해서, 만들어서 전세계로 뿌리면서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들을 쓰고 강연활동을 벌이고 하면서 1890년대 대부분을 보내죠.

1900년대가 시작되는데, 미국 뿐아니라 다른 나라도 제국주의화 되어서 점점 서구 열강들이 자본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철강회사를 유지시킨다면 원료를 수입해야 하므로 식민지 경영이 필요한 거죠.

식민지에 다 생산하게 하고, 자기들은 가져와서 팔고,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의 경우 원주민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나서 식민지가 필요가 없었죠. 미국은 풍부한 땅이어서 직접적 식민지 경영을 안했는데,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경화의 길을 걸었는데, 어느 나라든 걷게 되는 길이지만 제국주의화 되는 길로, 유럽의 열강들이 가고 있었고, 그 모순이 폭발한 것이 세계 대전이죠. 1902년인가 출고츠(Leon Czolgoz)가 맥킨리 대통령을 암살하는데, 출고츠의 경우 정신병이 있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아나키스트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유명한 엠마 골드만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가서 만나달라고 하는데, 엠마 골드만이 보니까 아닌 것 같았죠.

또 하나 위험했던 것은 가장 위험한 인물로 엠마 골드만이 낙인찍힌 상태이므로, 정부에서 첩자를 보내, 테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려는데, 마침 출고츠가 엠마 골드만에게 같이 어울리자 하는데, 엠마 골드만이 보니까 수상한 행동을 하죠. 엠마 골드만이 출고츠를 첩자

로 보고, 출고츠는 사실 정신적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이 커지면서 맥킨리 대통령을 암살하는데, 정부에서는 다른 ана키스트 그룹이 그것을 시켰다했는데 사실은 단독 범행이었죠. 미국 정부는 이것을 일망타진의 기회로 삼기 적절했죠.

출고츠가 엠마 골드만과 만났던 흔적이 있었고, 그런 것을 이용했죠. 엠마 골드만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법은 가진 자들의 이야기는 들으면서 약자가 증거를 내거나 할 때 채택되지 않는거죠. 엠마 골드만의 경우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연관성이 가질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한 달 정도 수사받다가 풀어줬죠. 미국 대중들이 가만있지 않았죠. 기획수사등, 출고츠는 교수형을 당하죠.

그런 사람에게 범죄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데, 미국 사회에 광풍이 불고 있나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되죠. 출고츠를 교수형하고 헤이마켓 사건도 있고, ана키스트의 입을 막으려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없애지게 되죠. 엠마 골드만은 반대해서 ‘어머니 대지’, 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거기에 실린 글들이 ‘저주받은 ана키즘’으로 묶여져 나오죠.

▲엠마 골드만의 강연회

섹슈얼리티에 관한 글들, 여성주의, 가족에 관한 글들이 ана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알렉산더 버크만이 1907년이 1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데, 1907년이 되면 알렉산더 버크만과 함께 잡지를 내고, 101년 전에 역사적 ана키스트 운동에서 보자면, 1907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전세계 ана키스트들이 생긴거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세계 ана키스트들이 모이는 총회가 열리죠. 엠마 골드만의 경우 미국 대표단으로 가죠. 그때 주요한 의제 중 하나가 ана키즘과 생디칼리즘,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노동조합운동, 이 일치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둘을 어떻게 바라보고 화해를 시킬거냐, 모순적인 측면을 어떻게 할거냐를 주요 의제로 다뤘죠.

2007년 올해가 백주년이 되었다. 숨겨진 자료들이 나오고, 의미있었던 해였고, 엠마 골드만도 지속적인 활동을 했고, 강연회를 하면 항상 만원이었다고 하죠. 엠마 골드만이 강연회를 연다고 하면 스파이가 동향보고서를 내죠. 그러나, 첩자들이 저게 무슨 말을 하는가. 국익에 위배되는 말은 아닌가, 증거를 잡아 기소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죠. 첩자들의 동향보고서를 입수하니 엠마 골드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차더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엠마 골드만의 감옥생활

엠마 골드만은 기존의 ана키즘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다뤘고, 감옥에 가게 되면서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평소 강연회, 조직을 위한 사람들은 운동가들, 지식인들이 많았겠죠. 사회적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ана키즘에 대해 말하고 싶다는 것이 엠마

골드만의 가장 커다란 열정 중 하나였죠.

진짜 밑바닥 사람을 모아서 그들과 공감해서 흐름을 만드는 것, ана키즘이 계속 소수로 전략해가는 과정에서 자신도 실망감을 느꼈죠. 피임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필요하다고 하고, 정보를 기관지, 잡지에 알려서 미국에 살포를 하죠.

어떤 법에 걸리냐면 내용이 음란하다, 야하다고 해서 금지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감옥에 가게 돼서 2년 동안, 개인의 관점에서는 좌절의 시기였는데, 나름대로 활기차게 지내게 된 이유는 동료 여성활동가가 좋았고, 평소에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강연회때 오지 않았던 사람들,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 배웠다고 해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동양에 살고있던 ана키스트, 중국, 조선, 일본은 조금 늦게 1910년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 살펴볼 중국의 ана키스트 빠진(巴金)은 엠마와 편지도 주고받으며 교류를 했다고 해요. 빠진은 오래 살았어요. 죽은게 2006년, 백살이상 살았는데, 20대까지는 ана키즘에 취해서, 중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중국 문학, 현대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소설을 안들어볼 수가 없죠. 필명을 20대에 짓고, 소설 쓰고, 이게 빠진의 빠는 바쿠닌에서의 바, 크로포트킨, 낄자를 金으로 쓰죠. ана키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2교시 : 엠마 골드만 5

▲러시아로의 귀환



1860년대 태어났으면 60세 가까이 되던 중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들어가요. 이전까지 격렬한 삶을 살았는데, 또 다른 희망을 품고 러시아로 간거죠. 미국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있었죠.

엠마 골드만이 뛰어난 이유중 하나가 일차 세계대전이 당시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지식인, 노동자들 누구든 회오리 바람에서 자유롭지 않았죠. 크로포트킨, 불세출의 아나키스트,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꼽는데,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크로포트킨을 꼽을 수 있는데, 아나키즘의 중요한 원리, 상호부조를 구체적인 수준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생물학적인 면에서도 적자생존이 잘못되었다고 밝히고, 인간의 삶에 있어도 적절한 원칙이 아니다. 대결하면서 발전하는게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발전해왔다는 관점을 제시해 왔죠.

1차 세계대전, 최악의 경쟁이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밟아야 한다, 그런 것에 반대를 한 이론을 펼쳤던 크로포트킨도 그 광풍에 자유롭지 못하고 연합군을 지지하게 되죠. 나중에 변절이라고 비판하죠. 이론적 작업의 중요성을 떨어뜨리지 않지만 당시의 시대분위기가 얼마나 힘들었나 알 수 있죠.

엠마 골드만의 경우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온갖 고초를 겪으며, 계속적인 벌금들이 날아왔고, 엠마 골드만이 미싱사로 일하던 임금이 일주일에 2.5달러. 피임을 선동해서, 징병제에 반대하는 선동을 해서 감옥에 갇혔을때, 미국에서 보석금제도가 있죠. 25000달러를 내야지 나오게 하는, 엠마 골드만은 당연히 돈이 없었을 때니까 경제적 고초를 당했었죠.

▲러시아의 언론과 사상의 자유

러시아로 돌아와서 페테르부르크에 살면서 실제적인 모습을 보게 된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고 러시아 전역으로 여행을 한거죠. 왜 이러느냐, 실제 미국에서 당한 것이 많아서 엠마 골드만에게 중요한 것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것 중 하나였죠.

미국정부에 의해 생각을 검열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한다는 것이 엠마 골드만의 생각이었고, 당연히 러시아에 그런 언론, 사상의 자유가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이것을 합리화 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백군, 러시아 옛 귀족들, 혁명을 통해 쫓겨났던 사람들의 반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진압해서 안정이 될 때까지는 국가에 의한 억압, 독재나 탄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정당화 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한계가 있었고, 엠마 골드만의 경우는 잘못되었다고 본거죠. 해방이 아니라 지배자의 이름, 성질만 바뀐 거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러시아에서 느끼죠.

그래서 레닌을 만나 왜 언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느냐. 볼셰비키의 이념이 아니면 금지가 된 상황이죠. 러시아 혁명을 위해 싸웠던, 남부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 마흐노 нестор іванович махно 라는 사람이 있고, 엄청난 평야지대여서 러시아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지금도 밀이나 면화나 많죠. 소련시대, 산업재배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죠.

마치 커피나 같은 환금(換金)작물 때문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심지 못하고, 아프리카나 카리브 연안의 나라들이 세계무역과 경제제도에 종속되어서 자급적 생활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된건데, 레닌이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엠마 골드만에게 말하죠. 부르조아들만 누른다. 우리는 없다. 그런 미신은 인정될 수 없다.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 혁명을 지키기 위해, 볼셰비키가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을 러시아 전역에 적군 배치하고, 강압적인 통치하면서, 이것을 비판한 사람들은 반혁명 분자로 몰아서 처형하고, 레닌부터 나타났고, 스탈린 시절부터는 심해지고, 혁명에 성공하고 권력을 반동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축출되었던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레닌의 목을 치려고 하니깐, 유신같은 것을 할 수 밖에 없던 거죠.

시대적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정권을 지킬 수밖에 없죠. 아나키즘, 저 같은 사람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지만, 누구든 권력의 장악을 혁명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이룩한 사람이, 반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내주는 것은 말이 안되죠.

카스트로든 누구든 마찬가지죠. 체게바라도 마찬가지, 혁명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하고, 합리화시키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제적 상황이 있었던건데, 현실적 한계가 있었는데, 엠마 골드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노동자들과 기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혁명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과 입장과 다른 사람들을 쳐 나가는 입장이 있잖아요. 어디서든 벌어졌던 현상이죠. 북한, 러시아, 중국에서도 그랬죠.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힘을 모은건데, 마흐노같은 사람들이 반혁명분자로 쫓겨나게 되죠. 농민군을 만들어서 농민들을 모아, 백군이 쳐들어올 때 백군과 싸우고, 무기를 강제적으로 회수하고 해산시키고, 크론슈타트 반란사건이라는 것이 1921년에 일어나요.

▲크론슈타트 반란사건

논쟁이 많이 되는데,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만, 낮은 군인들, 해군들이었죠. 평민의 자식들이었고, 군대에 가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소비에트를 만들고, 짜르도 몰아내고 그랬던 건데, 크론슈타트라는 소도시의 군사항구에 있던 군인들도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참여했던 사람인데, 성공이 되자마자 성격이 변질되어서 자치를 위한 노력, 또 다른 종류의 억압이 있었고, 그것을 반대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군 지도자들은 혁명의 전위부대를 형성했던 트로츠키같은 사람들이었죠. 혁명군 총사령관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군인들의 반란을 일어난 사람들은 역시, 요즘 광주민주화 운동과 같은 반란을 일으킨거죠. 티벳에서 일으킨 것처럼 중국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지만 티벳의 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군대로 가서 자신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점령한거죠.

1959년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경찰과 군대의 힘에 의해 제압당했듯이, 크론슈타트도 같은 일이 있었죠. 해병들이 압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를 원한다, 했는데 몰살당했죠. 처형을 당했죠.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원하던 사회가 아니었구나하면서 러시아를 떠나죠. 알렉산더 버크만도 떠나죠.

▲사코와 반체티(Sacco-Vanzetti) 사건

여러 가지 자유, 억압들이 계속되던 것이 너무 많아서 다른 유럽나라로 전전하게 되죠. 그 이후 불안한 삶을 보내요. 한 곳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프랑스 영국 돌다가 캐나다에서 뇌졸중, 중풍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 1940년이예요. 그 전 러시아 상황을 보고 영국으로 가서 살면서 안정을 찾아가 했는데 완전한 안정은 아니었구요.

유럽을 돌면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1차대전 이후에는 사회운동이 퇴조되는 분위기여서 예전처럼 활동을 열성적으로 하지 못했고, 1920년대 열심히 활동을 해왔던 혹은 비슷한 사건, 정부의 조작으로 무고한 사람으로 아나키스트로 놓고 처형하는 사건이 미국에서 또 한 차례 일어나요. 사코와 반체티 두 명의 이탈리아 아나키스트 인데요.

1920년 때면 이탈리아에서 뭇솔리니의 파시즘이 출현하죠. 국가 중심주의죠. 개인의 자유는 없고, 애국 국익이 우선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 사코와 반체티가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 재화공장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코와 반체티와는 무관하게 폭력사건이 벌어졌는데, 두 명의 이탈리아계가 저지른거다라고 증언했죠. 우연히 갓 건너온 두 명이 지목을 받아 증거없이 사형을 당해요. 다른 역사에서도 있었는데, 힘든 나날을 보내구요.

▲스페인 혁명

마지막으로 엠마 골드만의 열정을 불태운 사건이 스페인 혁명기간이죠. 스페인에서는 생디칼리스트들Syndicalist, 바로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ана키스트들이 살고 있는 카탈로니아 지역에서는 ана키스트운동이 처음부터 강했던 지역이고 공장의 자주관리, 마을을 자신의 원리에 따라 운영을 해나가는 역사가 있었죠.

유럽 여러나라를 떠돌다가 스페인에 가서 ана키스트들과 함께 살게 된 처음으로 자기의 이상이 실현되는 곳에서 사는 기쁨을 처음 맛보게 되었다고 자서전을 적고 있죠. 미국도, 러시아도, 영국도 아니었죠. 원칙에 따라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죠. 실제와 괴리를 느끼며 큰 아픔을 느꼈죠.

60대의 엠마 골드만은 스페인에 사는 ана키스트들이 사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장, 학교 그런 것에 관련된 이념이 나오고, 일상적으로 ана키즘을 내세우지 않아도 살아갔던 건데, 엠마 골드만이 보기에는 감동적인 거였죠.

스페인 내전이 발생되는데, ана키스트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휘감아돌던 파시스트들, 독일에서는 나찌즘, 우익 초국가주의자들의 흐름이 당연히 스페인에서도 나타났죠. 한국에서는 박정희로, 그 흐름이 1920년대 30년대, 미국도 마찬가지고, 스페인에서는 프랑코가 나타나 독재한 거죠.

지금은 전쟁시대야. 너희들의 자유는 우리가 제한해줄게, 이런 식으로 모든 지역을 장악하려했던 사람들이 있고, 많은 우익들이, 그래 중요한 우리를 지켜줘, 독일이 우리를 쳐들어 오려고 하고 있어. 그런 이념들이 무성한 시기였죠.

◆3교시 : 엠마 골드만 6

▲캐나다로 이민 후의 생활



스페인 내전에 프랑코에 반대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민전선이죠. 우익 파시즘의 부흥, 발흥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 동아시아에서도 1930년대 일본이 그런 역할을 했죠. 유럽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일본이 점령을 했고,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국본토를 점령하고 아시아를 점령하려던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욕망이었고, 더 큰나라를 먹기 위해 큰 영토를 먹어야한다고 생각했죠.

반일, 반일제를 위해 중국 공민당, 공산당, 아나키스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싸울 수밖에 없죠. 조선에서도 가만있으면 힘이 커지는 일제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작은 차이는 접어두고 공통의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는 것이 파플러 프론트(popular front)라는 인민 전선이었죠,

공산주의자들이 쫓던 건데, 반대하기 힘들었죠. 적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일본의 남경대학살에 30만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스페인에서도 힘을 모았죠. 하지만 이기지 못했던거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전화속으로 빨려가죠. 군국주의 세력이 완전히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죠.

열정적으로 2, 3년동안 스페인 내전 기간동안 아나키스트들과 살면서 그 곳을 지키고자 노력했어요, 관련 글들을 모아 책을 내고, 전 유럽을 대표로 스페인 아나키스트들 총 대표를 하던 모임, 단체, CNT 라는 것이 있는데, 스페인 노농 총연맹, 대표로 갔었죠. 실패 후 캐나다로 가서 말년을 보내죠.

미국에서 추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없죠. 한국에서 운동하다가 10년동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죠. 엠마 골드만의 경우, 미국에 돌아갈 수 없다. 엠마 골드만이 유명해서 자기가 낸 책, 러시아에서 내가 느낀 환멸, 미국에서도 나오니까 독자모임을 미국에서 하고 싶다. 엠마 골드만을 미국으로 입국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운동이 벌어지죠. 미국에서 거부하다가 현안에 대해 엠마 골드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독자모임을 하라고 하죠. 갔다가 10일짜리 비자를 줬겠죠.

비자후 캐나다로 가서 다시 미국으로 가려는 건데, 마지막 캐나다에서 말년을 2년동안 보내면서 다시 비자 신청을 한게 미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계속 영어로 한 자료들을 60년대 말년에 세월을 보내고 중풍으로 쓰러져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걸었죠.

▲엠마 골드만과 결혼제도

엠마 골드만의 후대에 끼친 영향을 한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조감도는 이렇구요. 지금에서 논쟁거리가 있죠.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성매매부분, 엠마 골드만은 여성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따라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별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죠. 자기일의 공헌이 아니라 성에 의해 취급되었다. 거의 필연적으로 성적호감의 대상이 되고 관련된 위치에 따라 받아들여지게 된다.

결혼해서 한남자에 종속이 되건 아니건 그 위치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당시로서 선진적인 주장이었죠. 여성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거부한 거고, 일부다처제를 말했다기보다 결혼제도는 반인간적이다. 자신은 종속이 되지 않겠다고 하죠. 삶도 그렇게 살았고요

러시아에서 나와 영국인이 엠마 골드만에게 청혼을 하죠. 받아들이는데, 영국시민권을 위한 것이죠. 그 이상을 생각해서 결혼한게 아니었죠. 결혼제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죠.

▲엠마 골드만의 전쟁에 대한 생각

‘저주받은 아나키즘’ 책을 보면 감동적인 연설이 많이 나와요. 전쟁이란 뭐냐. 겁이 너무나 많은 두 나라가 젊은이들을 대신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뒷짐지고 있다. 서민들 입장에서 감동적인 말이었죠.

130쪽, 군대가 지키는 무력에 의한 평화는 거짓이다. 막강한 군대가 있어야 평화를 지킬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전쟁준비를 위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꼴이다. 힘센자가 평화를 지켜준다고 하면서 그런 적이 있느냐. 가장 평화적인 것이 가장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거냐.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기도 했었고, 주로 유럽과 북미지역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류하고, 초창기 아나키즘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온몸을 바친 사람이 엠마 골드만이었죠.

가장 미국에서 위험한 여성이다. 엠마 골드만과 루시 파슨스 둘 다에게 미국 정부가 붙였던 딱지였지만 그에 걸맞는 활동을 했지요. 앞으로 엠마 골드만이 했던 말들, 저작들이 꾸준히 번역되었으면 좋겠다.

▲엠마 골드만의 징병제에 대한 생각

기본적으로 어떤 이렇게 해야 한다. 군대라는 것은 전쟁준비하는 집단이고, 이러저러한 국가를 위해 인간의 가치가 희생되는 것이라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엠마 골드만의 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대쪽이야기만 전해져 있었으니까요. 판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듣고 개인이 내려야 할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병역거부운동에 동참했는데, 한 사람에게 병역거부를 하라고 말하지는 못하죠.

지금의 한국, 군사주의인데, 병역거부를 하면 어떤 고초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선동못하는 거죠. 엠마 골드만도 군대에 가지 말아라 선동하다가 국가기관의 표적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징병제의 의미,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개인과 국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약간 수정하게 되요.

하나의 단체, 징병문제 거부 연합, 뉴욕의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가 좀 더 유향된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국가라는 것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군대 가서 군인이 되는가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징병제가 유지됨으로써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이 나오고 있는지, 여성, 남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토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죠. 이런 것을 깨는 것이 필요하죠. 실제적인 행동,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할거구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는게 중요하죠.

무엇이 옳바르냐, 가치판단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하나의 입장, 지금까지는 국가주의 입장이었는데, 진실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봐야할 반쪽도 못 본 것이라는 거죠.

▲병역거부권

일단은 징집의 논리는 어디서든 나오죠. 받고 싶지 않아도, 항상 나오죠. 따로 줄 필요는 없죠. 균형이라는 것은, 징집의 논리와 징집 반대의 논리의 균형을 맞추려면 학생들에게 어떤 평화주의에 관해서 일주일에 100시간씩 설명해도 부족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주의에 몰들어서 수십년을 보내서, 체제 자체에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런 노력도 그런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일치하는 부분이 1 정도는 일치하죠. 반대를 하는 현상적인 측면은 일치하는데, 이유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죠. 표면적인 행동의 결과는 비슷하지만 내용, 어떤 이유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 경우 국가체제를 거부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서 같이 사는데, 세속적인 국가에서는 인정이 안되죠. 서로 죽인다는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죠.

그게 생각이 다른 지점이지만,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병역거부가 권리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활동자체는 중요하죠. 역사적으로 병역거부가 인권으로 인정된 게 1차 세계대전 기간이었죠. 영국이 먼저인데,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이었으므로 병역거부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된거죠. 병역거부권이 없으면 저런 야만적인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다른 선택이 없구나. 이게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을 전쟁을 하는 사람들

이 상식으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법으로 인정된거죠.

한국의 경우 지금 전쟁상황이기 때문에 남북대치상황이기 때문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는 이르다. 국가의 신념체계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요.

▲병역사회인 남한

모병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추구해야 될 가치는 아니지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징병제를 유지하는 근거는 북한이 얼마정도의 군대수를 유지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군사전문가의 주장이에요. 한 번도 반박되거나 의문되지 않았어요.

남한의 군대가 50만, 60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한 번도 생각해오지 않았다. 변화되는 조건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군대수가 10만이라면 모병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 민주주의 성장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물리적인 군대수를 똑같이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

50만, 60만의 현역 군인수를 유지해야 되냐고 하면 10만도 좋은 거죠.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만 이하의 군대수를 유지할 경우 당장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의 반응은, 국가가 우리에게 준 사고 패턴인거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가능하리라고 봐요.

한국사회가 병역사회였던 거죠.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병역문화가 한국사회전체에 퍼져있는 거구요. 그게 군사주의라는 거죠. 군대의 가치라는 것이, 내부뿐 아니라 온 사회에 퍼져있는 것이 폐해라는 거죠.

왜 여자들은 안가느냐 하는데, 여성들이 군대를 안간다고 해도 군사주의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면 아니거든요. 여성은 안가는 대신, 수많은 대가를 치르죠. 차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군인들에게 제공되는 거죠. 남자들은 지켜야 된다는 것은 남자들에게도 안좋지만 여자들한테도 안좋죠.

군사주의를 많은 여성주의자들도 반대했던 거죠. 엠마 골드만이 옛날부터 설파한 거죠. 단순히 징집되서 가는 남성의 문제라면, 엠마 골드만이 굳이 발언을 하고 징병제 반대를 하고 감옥에 갈 필요가 없는 건데 징집되어 끌려가는 사람뿐 아니라 온 사회에 그 가치가 퍼진다고 생각한거죠. 그것 사실이구요.